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유물 전시 경향과 방향

최성애(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1. 들어가며
2.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고고학, 지나온 길
3. 대중고고학과 대중을 위한 박물관 전시
4. 마치며

1. 들어가며

일제강점기(1910~1945)를 지나 한국전쟁(1950~1953)의 폐허를 딛고 반세기만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안 국립박물관¹의 존재는 한국적인 것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국립박물관은 고고학적 조사로 새롭게 입수된 자료²를 활용하여 전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 변화시켜왔고, 한국 고고학은 국립박물관과 함께 성장하면서 한국인과 한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한국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는데 노력해왔다.

‘5천년 문화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상징’ 국립박물관은 2015년 용산에 자리잡은 지 10주년, 국립박물관 개관 70주년을 맞이한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배울 있는 유물을 소장하고 보존하며 전시와 교육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했던 국립박물관과 한국고고학은 대중의 인식 속에 어떻게 자리잡고 있을까³?

이 글에서는 지난 시간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립, 박물관’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과거의 물질문화를 어떻게 전시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어렵고 힘든 시대 상황에서도 국립박물관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명을 품고 존재하면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하드웨어인 박물관 건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소장품, 운영 인력과 예산 등 많은 문제를 극복하였고 이제는 국

¹ 1975년 8월 20일 대통령령 7745호에 의해 국립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주(1926), 부여(1939), 공주(1946) 지역의 분관은 각각 경주박물관(1975 현 신축 이전), 부여박물관(1993 현 신축 이전), 공주박물관(2004 현 신축 이전)으로 승격하였다. 2013년 개관한 국립나주박물관을 비롯하여 광주(1978.12), 진주(1984.11), 청주(1987.10), 전주(1990.10), 대구(1994.12), 김해(1998.7), 제주(2001.6), 춘천(2002.10) 등 국립중앙박물관은 12개의 소속박물관을 두고 있다.

² 고고학의 1차 연구 대상인 인간의 문화적 행위가 포함된 인공 유물, 자연 유물, 유구, 유적, 취락 등 과거 인류 행위의 물질적 잔재들의 총체로서 고고학적 기록(archaeological record)을 담은 발굴매장문화재로 이 글에서는 ‘고고유물’이라 한다.

³ 관람객들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적합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을 선택하는데, 지적 동기와 문화유산 학습 욕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중요한 동기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 유발에는 박물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새롭게 발견된 고고학 자료가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립박물관의 위상에 맞는 필요충분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박물관 전시에 대한 대중의 만족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⁴.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중을 위한 박물관을 위해 앞으로 고고유물의 전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땅에서 출토된 고고유물이 큰 맥락 속에 읽혀질 수 있도록 전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과거의 물질 자료를 통해 과거 문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적인 것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 각각의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그래서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되고 연구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고고유물이 가진 맥락을 살리고 그 가치를 전달하는 전시는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고고학, 지나온 길

한국의 과거 물질자료에 대한 본격적 관심은 일제에 의한 조선 식민지 지배 정당화를 위한 정책에서 출발했다. 한국의 문화를 왜곡 변형하여 식민지배의 이데올로기로 삼기 위한 목적의 ‘고적조사사업’⁵이 일제강점기 동안 지속되었다⁶. 당시 일본의 고고학적 수준에서 한반도 고적 조사는 그들의 훈련을 위한 수단이었고 유물 수습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집된 유물은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식민사관의 선전과 확산을 위해 전시되었다⁷.

1945년 12월 3일, 해방 직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고 총무과·학예과·진열과 3과의 조직을 갖춘 ‘국립박물관’이 개관하였다. 국립박물관은 일제에 의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 잡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첫출발로 1946년 5월 3일, 경주 호우층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추진하였다.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추진된 고고학적 조사는 한국 고고학의 초석이⁸ 되었고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과

⁴ 국립중앙박물관 고객만족도 결과 전시내용의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개선이 필요하며, 중점 개선 영역은 흥미이고 전시에 대한 이해도 역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⁵ 조선총독부는 1916년 ‘고적급유물보존규칙’을 제정하고 ‘고적조사위원회’를 설립한 후 193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고적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1931년부터는 ‘조선고적연구회’가 설립되어 1945년까지 고적조사사업을 주도하였다. 일제강점기 고적은 ‘패총貝塚, 석기石器, 골각기류骨角器類를 포함한 토지土地 및 수혈竅穴 등 선사유적先史遺蹟, 고분古墳과 도성都城, 궁전宮殿, 성책城柵, 궤문闕門, 교통로交通路, 역참驛站, 봉수烽燧, 관부官府, 사우祠宇, 단묘壇廟, 사찰寺刹, 도요陶窯 등의 유적 및 전적 기타의 사실史實에 관한 유적’으로 칭하고 있다(고적급유물보존규칙 제1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총독부 박물관 공문서를 통해 본 『고적조사』는 현재의 고고학, 건축학, 역사학, 미술사의 넓은 범주를 포함하며, 「고적조사위원회·복명서·조사보고서·고적유물대장」 등으로 분류된 150여권의 문서철에서 당시 고적조사와 관련된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morden-history.museum.go.kr을 통해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⁶ 고적조사는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타율적 식민사관 이식을 위한 증명자료를 찾기 위해 한사군이 위치했던 평양의 낙랑 유적과 경상도의 신라와 가야지역 고분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화려한 부장품이 매장된 고분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전시품으로 활용할 목적에도 부합하여 일제강점기 동안 엄청난 수의 고분이 조사라는 명목으로 파헤쳐졌다

⁷ 일제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은폐, 축소하는데 고고유물을 이용하였는데 총독부 박물관에 낙랑실을 설치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⁸ 경주 은령총(1946), 경주 황오리고분(1949), 경주 감은사지(1959), 의성 탐리 고분(1960) 등을 국립

전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가치를 갖는 일이었다. 그러나 소장품의 보존과 활용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박물관 건물이 불완전한 상태에 전문 인력 없이 소장품 확보를 위해 시작한 발굴조사는 정리와 보관이라는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⁹.

1960년대는 고고학과와 박물관이 체계를 갖추며 함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도기였다.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1961)를 시작으로 대학교에 고고학 관련학과 및 부설 박물관들이 설립¹⁰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¹¹. 박물관에서는 김재원 관장을 초대 회장으로 ‘한국고고학회’가 발족(1967)하였다. 국립박물관은 60여 건의 시·발굴 조사를 수행하면서¹² 원삼국시대 문화상을 밝히는 등 한국 문화의 연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¹³. 자체 발굴조사를 통한 새로운 자료 확보에 더해 매장문화재보호법 제정(1962)으로 발굴매장문화재의 국고귀속 보관관리처가 국립박물관이 되면서 다양한 유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수 있었다¹⁴. 그러나 당시 국립박물관은 협소한 전시 및 수장 공간, 전문 학예 인력의 부족, 공립중학교 운영비 정도인 연간 예산 등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¹⁵.

그럼에도 국립박물관은 ‘민족문화의 저장소’를 목표로 국민들에게 한국 고대문화 이해를 위해 노력하며 전시의 기본 틀을 갖추어 나간다. 고고유물 전시는 광복 전에 그 존재가 부인되었거나 모르고 있던¹⁶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로 이어지는

박물관이 조사하였다. 1946년부터 1960년까지 21건의 발굴조사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13건을 국립박물관에서 조사했고 해방 후 10년여 동안 이루어진 10건의 발굴은 모두 국립박물관이 주도하였다.

⁹ [동아일보 1961.3.23-김원룡;국립박물관이 박물관인 동시에 정부 고적조사소 같은 임무도 맡아왔기 때문에 그 소장품의 태반은 발굴에서 얻은 고고학적 자료이며 그 수가 너무 많고 보관설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박물관으로서의 활동은 자연히 수납품의 보관 정리사업에 기울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발굴사업과 그 뒤치닥거리에 정력을 소모하여 교육 사업은 낙제를 면치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¹⁰ 대학설치기준령의 부속박물관 설치 필수조건으로 부산대·경북대·고려대·경희대·이화여자대학교 등에 박물관이 생겼다. 대학박물관이 학생들을 고고학적으로 훈련시키면서 소장유물까지 확보하는 데 발굴은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그러나 발굴한 유적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무분별한 발굴을 막고자 문화재관리국에서 사립대학의 발굴허가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¹¹ 서울대 고고인류학과와 현 풍납토성 조사를 비롯하여, 연세대의 공주 석장리 유적(1964) 등의 조사는 여러모로 큰 성과가 있었다. 당시 훈련 받은 고고학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각 대학의 초창기 발굴조사가 미흡할 수 밖에 없지만 한국의 고고학적 과거를 밝히기 위한 각 대학 연구의 시초가 되었다.

¹² 부천 시도패총(1969)과 동삼동패총(1968~1971) 조사로 신석기시대 편년과 문화상을 규명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청동기문화 조사를 위한 14개 유적의 60여개의 지석묘 조사(1962~1967)는 이 시기의 중요한 성과로 꼽히고 있다. 부산 낙민동패총(1967~1970), 고성 동외동패총(1969~1970) 등도 이시기에 조사하였다.

¹³ 1961년 국립박물관은 고고과, 미술과, 관리과 등 3과로 조직 개편이 있었다. 박물관 전시의 고고품과 미술품 이분화 운영 체제에 따른 것이었지만 학예인력은 4명(미술과에 1명, 고고과에 3명 등 3급 학예관 4명이 있었고, 촉탁직으로 3명이 있었다)에 불과하였다. 학예직이 담당하는 조사, 정리, 보고서 발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¹⁴ 1962년 국립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경주 황오리4·5호분 출토유물 50점이 최초의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로 박물관에 입수되었다(경주288~297, 경주1588~1608). 1970년까지 국립박물관에 수입된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는 7,345점인데, 이에 비교해 2013년 한 해에 국가귀속 유물은 137,511점에 달한다.

¹⁵ [경향신문 1970.2.14, 2.16-박물관을 내 집처럼/ 동아일보 1970.3.2-국립박물관 오늘과 내일, 김재원 박사 퇴임 계기로 들춰본 문제점 들] 해방 후 25년간 국립박물관장을 지낸 김재원 관장님의 1970년 정년 퇴임 회고에서 박물관의 사명과 앞으로 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다.

¹⁶ 1960년대 이전 신문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선사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석묘에서 출토된 석기를 ‘금속병용기’나 ‘조기석기시대’의 유물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 선사문화의 흐름에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 삼국시대까지 ‘시대별’ 전시를 위한 편년을 설정하였다.

1970년대 전반기에 한국 고고학계와 국립박물관은 매우 중요한 전환을 맞이한다. 1971년 우연히 발견된 공주 무령왕릉 조사에 연이어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조사단에 의한 경주의 천마총(1973)과 황남대총(1973~1975) 등 엄청난 규모의 고고학적 발굴이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추진되었다¹⁷. 1972년 국립박물관은 ‘민족주체의식 고양을 위한 국사교육 강화시책’에 맞물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8월 경북궁 내 박물관 전용의 최초 건물로 역사적인 이전 개관을 하였다¹⁸. 새 박물관에 대한 기대와 관심, 걱정과 우려 속에서 국립박물관은 우리 민족 문화와 예술의 전당으로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친근한 박물관이 되고자 하였다¹⁹. 고고유물 전시는 선사(1실)-삼국(2실 고구려·백제, 3실 신라)-통일신라(4실)로 이어지는 시대별 전시를 보다 체계화하였다²⁰.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국립박물관과 고고학계가 위기를 넘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이다. 국토개발 앞에 파괴되는 유적의 기록을 남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급증한 발굴조사로 드러나는 과거 문화상을 탐구하고 고고학도를 양성하며 지역별 연구조직을 구성하는 등 학계와 박물관이 함께 노력하였다²¹. 국립중앙박물관은 기본 임무에 충실히 따르면서 고고학적 조사와 전시를 통해 우리의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전달하

¹⁷ 발굴된 유물의 보존처리 및 연구를 위해 국립박물관으로 이송된 무령왕릉 출토유물에 대한 정리 후 공개특별전이 개최되었다. 10월21일부터 11월18일까지 개최된 전시는 당시 관람객의 3배이상인 65,302명이 관람하여 전시를 30일까지 연장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고, 당시 전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공주박물관의 새건물 신축까지 이어졌다[경향신문 1971.7.15-포화 상태 국립박물관 무령왕릉 유품 보관을 계기로 본 실태/ 동아일보 1971.7.16-서러운 지방박물관 공주유물이송시비가 던진 새 문제점]. 국립경주박물관도 1975년 현재의 인왕동 부지에 새 건물을 짓고 이전하게 된다.

¹⁸ 국립박물관 경북궁2기의 시작으로 1972년 8월 25일 개관부터 1986년 3월 31일에 폐관까지다. 국립박물관의 첫 건물(국립종합박물관 신축공사라는 이름으로 추진,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건물로 사용)로 신축된 박물관은 건축 설계 당시부터 전시 공간의 협소와 건물 운영을 위해 엄청난 예산 소모가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다.

¹⁹ 퇴임한 김재원 관장의 뒤를 이은 2대 김원룡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흥미와 애정을 갖는 기능을 발휘하고자 하였다[동아일보 1970.5.13-신임 국립박물관장 김원룡 박사]. 새 국립박물관 개관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취임한 3대 황수영 관장은 박물관의 내실을 다지고 박물관이 창고가 아니라 국민과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처가 되는 ‘국민과 친근한 박물관’을 만들 고자 했다[동아일보 1971.9.28-새 국립박물관장 황수영 교수]

새 박물관에는 1일 평균 2,500명이상의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개관 후 9월까지의 관람객은 65,450명에 달했다. 1972년 관람객은 33만 9천여명, 1973년에는 61만 9천여명으로 박물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꾸준하고 지속적임을 알 수 있다. 1986년 중앙청 청사로 이전하는 14년동안 761만명이 관람하였다.

²⁰ 연천 전곡리·공주 석장리 등의 구석기 유적의 발굴 성과에 따라 구석기 유물을 최초로 선보였다. 무령왕릉 발굴로 풍부해진 백제의 유물과 고구려 쌍영총 출토 벽화편 등을 새롭게 선보인 삼국1실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중심의 이전 삼국실 전시에서 나아가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²¹ 문화재관리국의 발굴조사단에서 조사전문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별도 발족(1975)하여 박물관과 함께 국가적 조사의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다. 팔당댐수몰지구에 대한 7개대학과 문화재관리국·국립박물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연합발굴(1972)은 대규모 개발 전 고고유적 조사를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고고학회 이후 영남고고학회(1984), 호남고고학회(1993), 한국상고사학회(1987), 한국신석기학회(1990) 등이 창립되어 연구자간의 교류 활성화와 정보 교환 등 보다 체계적인 고고학 연구활동을 위해 학술대회, 학보 간행, 공동 조사 등의 활동을 하였다.

고자 하였다²². 고고학계의 꾸준한 성장과 함께 대규모 조사로 많은 유적이 발굴되었고 출토된 국고귀속 매장문화재는 국립박물관 소장품에 큰 기여를 하였다²³.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협소한 전시실과 수장시설 등을 보완하고 ‘민족문화창조의 모체’가 되는 새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1986년 중앙청을 개수하여 8월 21일 다시 이전 개관하였다²⁴. 고고유물은 선사-원삼국-고구려-백제-가야-신라1·2-통일신라로 이어지며 2층에 전시되었고²⁵, 여기서 틀을 갖춘 고고유물의 통사적 전시 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²⁶.

²² 서울 암사동유적(1971~1975), 울산 신암리유적(1974), 부여 송국리유적(1975~1978, 1985~1987), 춘천 중도유적(1980~1984), 창원 다호리유적(1988~1993), 천안 청당동유적(1990~1994), 여주 연양리유적(1995~1997), 원주 법천리유적(1999~2001) 등 5개년 계획의 지속적인 학술 조사로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에 이르는 고대의 생활 문화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전시를 통해 전하고자 하였다.

²³ 70~80년대에 걸쳐 경주 지역에서 실시된 대규모 조사에서 출토되어 국가귀속된 주요 유물은 황남대총 12,583점(황남 4,877건 11,336점/ 황북 832건 1,247점), 월성 1,831건 6,241점, 안압지 1,851건 33,919점, 황룡사 3,342건 10,836점 등 엄청난 양에 달한다.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 조치되어 중요 전시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복궁 2기 박물관에서 소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80년대 들어 2천만원 정도가 되었지만 당시 고미술품 한 점이 5~6천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로 수입되는 고고유물 외에 박물관의 신소장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정 박병래 선생 362점(1974기증), 동원 이흥근 선생 4,941점(1981기증)의 도자기와 회화 등의 미술품 기증은 국립박물관이 우수한 소장품을 확충하고 국민에게 선보이는 데 매우 귀중하고 가치있는 일이었다.

²⁴ 일제강점기 총독부 청사를 중앙청으로 사용하다가 새 청사로 이전하면서 이를 박물관으로 증·개축하여 1986년 8월 21일 개관부터 1996년 12월 12일 폐관까지 사용하였다. 박물관사 경북궁 3기에 해당한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서 경북궁 2기에 사용한 최초 박물관 건물에서 15년만에 새 박물관으로의 이전은 박물관 건물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시행착오를 다시 드러내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잔재의 상징인 총독부건물로 박물관을 이전해야 했는가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살아 있는 교육 장소로서 민족문화재를 영구히 보존하고 한국사 인식에 큰 도움을 주는 교육장이자 문화시설로 중앙청 박물관에 대한 기대는 높았던 것 같다[동아일보 1982.3.17-국립중앙박물관, 계획에 걸맞는 참다운 시설되도록/경향신문 1982.3.17-중앙청 이전과 박물관,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 되어야/매일경제 1986.1.27 국토의 고동 국립중앙박물관/경향신문 1986.8.21-문화 중흥의 도약 ‘중앙청 시대’ 열리다, 민족금지 심는 문화공간으로].

²⁵ 원삼국실과 가야실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시대별 독립 전시실을 마련하였고 유물의 진열에서 나아가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자 다양한 전시 기법을 동원하였다. 선사실의 움집, 천마총 출토 마구 복원품을 착장한 말모형, 황룡사 1/60 축소 복원 모형, 180여개 유적을 종류별 시대별로 보여주는 전국고고학지도, VTR설명 시설 등의 전시 기법을 동원하였다. 다양한 기법의 전시는 호평을 받았지만 관람객들의 반응에는 유물의 역사적 배경과 용도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동아일보 1986.8.23-새 중앙박물관 안내관 적어 관람객 당황/동아일보 1986.9.23-중앙박물관 불편한 점 많다. 공개 한달]

중앙청 박물관의 관람객은 개관 1년만에 2백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경북궁박물관의 1년 65만명의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박물관 입장료가 150원에서 500원으로 대폭 인상이 있었음에도 관람객수가 급증하여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공간은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인식이 많은 국민들 속에 확실하게 자리잡게 된 시기라고 생각된다.

²⁶ 당시 박물관 5대 한병삼 관장은 한국 고고학계의 첫 세대 박물관장으로 한국민족문화의 정통성과 발달사적 체계를 총정리하고 주변 문화와의 비교 연구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전시가 목표였다. 고고학 연구회를 이끌고 있던 한병삼 관장은 ‘한국고고학 시대 구분의 제 문제’를 주제로 고고학 전국대회를 박물관에서 개최(1986)하였고, 고고학적 성과를 토대로 한 한국의 선사시대 편년을 박물관 전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당시의 전시실 구성과 전시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선사영역 전시가 구석기실-신석기실-청동기실-고조선실-부여·삼한실 등으로 확장된 것을 제외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시대적 정치적 상황²⁷ 앞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또 한번의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중앙청 박물관이 일제의 잔재²⁸라는 수많은 논란 끝에 철거가 확정되자 현재의 용산가족공원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위한 새 건물 신축이 결정되었다²⁹. 새 박물관의 준공과 중앙청 박물관의 철거³⁰ 사이에서 박물관은 사회교육관 건물을 증·개축³¹하고 임시로 사용하게 되었다³².

이 기간 동안 박물관은 용산 새 국립박물관 이전 목표 아래 국내 고고학 조사 비중을 점점 축소³³하고 고고유물 전시를 새로운 공간에서 어떻게 전개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였다. 여러 문화 유형들을 설정하고 통사적 전시 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전시품을 선정하고자 고고학계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용산 시기를 준비하였다.

한국 고고학계의 고고학적 조사 대상은 한국사 전시기로 확장되었고, 많은 연구자들이 양성되었다³⁴. 형식분류와 편년 연구, 전파론적 해석 등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세분

²⁷ [한겨레1991.1.24-속전속결로 푼 중앙박물관 이전계획/한겨레1993.11.5-정치에 밀린 국립중앙박물관]

²⁸ 중앙청 박물관 외국인 관람객의 90% 이상이 일본인이었는데, 조선총독부의 터였던 중앙청 박물관 건물에서 옛 일제시대의 향수를 그리는 것 같다는 등의 언론 보도는 철거 찬반 논란에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매일경제 1991.8.15-총독부터 중앙박물관/경향신문 1992.8.29-총독부 향수 탓인가, 중앙박물관 일인 행렬]. 우리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가지는 국립박물관에 대한 국민 정서를 보여주는 예인 것 같다.

²⁹ 당시 박물관 이전계획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65%가 완전철거나 이전을 지지하며, 총독부 건물을 박물관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견해가 53%였다. 철거 시점은 신 박물관 건립 후가 53%였다 [동아일보 1991.6.14-중앙박물관 철거 65%가 환영, 문화부 여론조사결과]. 총독부건물 철거 찬반 논란의 가중 속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건립과 이전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2년에 하반기에야 용산 미8군터로 결정되었다[경향신문 1991.6.17-새 박물관 짓고 나서]

³⁰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며 1995년 3월 1일 ‘구 총독부 건물 철거 선포식’을 거행하고, 8월 15일 첩탐을 철거하는 대대적인 행사 이후 건물 해체작업이 진행되었다[경향신문 1995.7.30-광복 50돌 중앙당 첩탐 해체로 시동/동아일보 1995.8.16-민족의 맥 이제야 이었다, 일제통치 상징 구총독부 첩탐 철거되던 날]. 여론과 전문가, 박물관 모두 새 국립박물관 건립 이후 총독부건물이 해체되는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임기 내 총독부의 조속한 해체를 지시하였고, 새 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기를 맞출 수 없자 임시로 유물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총독부 건물의 조기 철거를 추진하였다.

³¹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경복궁과 이어지는 조선왕궁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증·개축되었다. 2005년 3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명칭을 정하고 8월 개관하였다.

³² 1996년 12월 12일 개관부터 2004년 10월 17일 폐관까지 박물관사 경복궁 4기에 해당한다.

한정된 기간 동안 사용을 위해 꾸며진 전시실로 전체 전시 영역의 축소가 불가피하였지만 고고유물 전시실은 면적이 넓어졌고 4천1백여점의 유물이 전시되었다.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여년간 전국의 주요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새롭게 전시에서 선보이고 모형과 영상자료를 크게 보강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경향신문 1996.11.28-미리 가보는 새 국립중앙박물관/동아일보 1996.12.7-170일만의 재개관 국립중앙박물관, 우리유물 반가운 재회]

³³ 여주 연양리 유적과 원주 범천리 고분 등의 중요한 유적 발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 조사를 점점 축소하고 동아시아 속에서의 한국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해 몽골, 베트남 등지의 국외 학술조사로 전환하였다[경향신문 1997.1.30-한·몽 몽골유적 공동 발굴한다].

³⁴ 1946년 우리 손으로 처음 발굴을 수행할 당시 유일한 조사기관이었던 국립박물관에서 현재는 수많은 조사기관이 있다. 대구 시지동 발굴조사를 계기로 파괴되는 유적에 대한 보존과 조사를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영남문화재연구원을 비롯해 2013년까지 142개의 조사기관에 조사 인력은 2,500명이다. 한 기관에서 매해 수행하는 매장문화재 지표·발굴 조사 건수가 30여건, 전국 각지에서 한해 3,000여건의 유적이 조사되고 있다. 출토된 유물의 국가귀속 수량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200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064,207점에 이르고 있다[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 2014년 6월 현황].

고고학적 조사가 결국은 유적의 파괴일수밖에 없는 명제 앞에 발굴의 양적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일 수

화된 연구를 진행하였고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 과거 물질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넓혀나갔다³⁵. 더불어 각 지방에 소속 국립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조직과 인력이 계속 확대되었고, 지역의 다양한 고고학적 과거 물질문화 복원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한편에서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발굴조사 결과가 지역 박물관 건립 계기로 이어져 중요한 유적지 등에 국립박물관 건립을 촉진하였다³⁶.

2005년 10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에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는 핵심 장소이자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 문화적 성취를 안겨주는 전당’을 목표로 10여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현재의 용산으로 이전 개관하였다³⁷. 용산 개관 5주년에 통사적 전시 체계 강화를 위한 고고관의 선사·고대관, 역사관의 중·근세관으로 전시 개편을 추진해 2010년 8월 조선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일맥상통 우리역사’ 체계를 구축하였다³⁸. 구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발해의 남북국시대로 이어지는 고고유물 중심의 선사·고대관³⁹, 고려~조선의 역사유물 중심의 중·근세관으로 연결되는 한국사의 통사적 전시 체계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을 강조하면서 시대적 배열을 따른 공간 설계의 완성이었다.

국립박물관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고고유물을 시대별로 전시하여 우리 역사의 흐름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전시 체계가 이로써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없다. 조사기관의 난립과 발굴과 관련한 최저가 입찰 계약은 부실발굴조사로 이어지며 고고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³⁵ 2000년 이후 한국고고학대회의 주제는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2001년, 부산)’, ‘해양교류의 고고학(2002년, 제주)’,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2006년, 서울)’,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2007년, 대전)’, ‘양식의 고고학(2008년, 춘천)’, ‘갈등과 전쟁의 고고학(2009년, 전주)’, ‘이주의 고고학(2010, 대전)’, ‘주거의 고고학(2013년, 경주)’ 등 갈등과 전쟁, 계층과 국가, 교류와 이주 등 새롭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상에 대한 논의보다 시대별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에 대한 개별성을 강조하는 경향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³⁶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맞물려 지역의 주요 유적은 역사 강조를 통한 홍보와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박물관 건립의 계기가 되었다. 유적전시관이나 박물관으로 등록된 곳은 2010년까지 40여개소 정도인데, 대가야역사관(1990), 복천박물관(1998), 함천박물관(2004) 등 주로 고분 조사 후 세워진 박물관이 많다. 고고유물은 지역의 국공립박물관에서도 중요한 소장품으로 박물관을 대표하며 전시되었는데 대부분 시대별 전시 구성 체계를 따르고 있다.

³⁷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 당시 고고관, 미술관, 역사관, 아시아관의 4개 영역의 전시 체계를 갖추고 종합박물관 성격을 지향하였다. 고고유물은 고고관 11개 전시실에서 2,700여점이 전시되었다.

³⁸ 역사관의 주제별 전시에서 한국사 통사 체계 맞춘 전시는 고조선실과 고려실 신설(2009) 등에 이어 조선실 신설로 완성되었다. 고고관, 역사관 명칭은 한국사 체계에 맞춘 선사·고대, 중·근세로 변경하였고 미술관은 2층은 서화관, 3층은 조각·공예관으로 하였다.

³⁹ 이후에도 고고유물 전시는 새롭게 발굴되는 자료를 보완하며 전시실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2월 구석기실·신석기실은 ‘다양성과 생동감이 넘치는 선사시대 속으로’를 테마로 새로 발굴된 600여점 등 1,000점의 유물을 전시하였다. 2012년 11월에 선사영역의 청동기실·고조선실·부여삼한실을 개편하면서 새로 발굴된 자료 등 1,000여점을 선보였다. 2013년 7월 가야실 개편은 가야에 대한 통사적 이해를 목표로 철과 토기를 중심으로 가야 문화의 특징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5월에는 통일신라의 불교문화와 귀족문화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 새로운 자료와 연구 성과를 담아 통일신라실이 개편되었다.

3. 대중고고학과 대중을 위한 박물관 전시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교류함으로써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향유를 증진시키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다”는 사명을 가진 국립중앙박물관은 2015년에 개관 70주년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의 기능은 유물의 수집과 보존 중심에서 전시와 교육의 이용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우리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박물관’에서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박물관’을 지향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은 매년 3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대중적인 문화공간으로 관람객에게 ‘재미있고 편안한 박물관’이 되기 위해 단계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중화를 위한 고고유물 전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국립박물관이 완성한 통사 전시체계에서 고고유물은 그것이 가진 맥락과 가치에 대한 발견보다 한국사의 발전 과정 이해를 위해 전시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민족의 창조적인 역사 발전 과정,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주체성 및 정통성, 5천년 문화민족의 존엄’을 과거 물질문화를 통해 보여주려 했고, 대중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와 문화의 우월성을 배우는 교육의 장소⁴⁰로 박물관을 이용했다. 한국 고고학과 박물관이 함께 이룬 한국사에 대한 새롭고 괄목할만한 이와 같은 성과를 대중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유물 전시가 한국의 시대별, 지역별 통사 체계를 갖추며 과거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고고학의 양적 질적 성장의 결과였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고고학, 양자는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해왔다. 과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되다가 폐기되어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된 자료는 박물관 전시에서 재해석되어 한국의 과거 문화를 이해하는 자료로 일반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유적과 유물을 통해 과거를 연구하는 고고학에 대해서는 친숙하지 않더라도 현재를 사는 우리는 박물관이라는 공간에서 과거를 만날 수 있었다.

고고유물은 매장문화재로 발굴되기까지 실재를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발굴된 자료는 시간과 장소의 광대함,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행위와 그 속에 내포된 문화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보여주며 현재를 사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고고유적과 유물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것은 인류를 위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앞에서 유적은 파괴되고 보존은 더 없이 힘든 사회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⁴¹. 박물관에서 유물은 보호되고 전승되지만 야외의 유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존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 시간 고고학과 박물관은 ‘한국의 정체성 찾기’에 집중해왔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빗살무늬토기, 한국식동검, 신라금관, 백제금동대향로 등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유물이 출토된 유적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⁴⁰ 국립중앙박물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교육적’ 기능을 한다는 응답이 절대적 비율을 차지한다. 상설전시 가운데 선사·고대관이 가장 선호하는 전시공간으로 꼽히는데, 관람 이유 역시 ‘교육에 쉽게 도움이 되어서’라는 의견이 많다.

⁴¹ 발굴조사가 끝난 유적의 보존 조치는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원형보존(사적 지정) 294건, 이전복원(비지정) 280건 등 574건에 행해졌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증가한 발굴유적 보존 조치는 2009년 이후부터 줄어들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적 지정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 보존 조치된 유적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논의가 요구된다.

지금 한국 고고학은 위기에 직면해있다. 발굴조사가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고고학과 함께 해온 국립박물관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박물관은 대중에게 ‘고고학’ 과 ‘고고유물’ 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 전달자였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립박물관은 고고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여 대중의 관심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매장문화재-고고유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공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자산임을 대중이 느낄 수 있는 전시 변화가 요구된다. 고고유물이 가진 의미를 찾기 위해서 관람객 스스로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에 따라 유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고고학자나 전시 큐레이터에 의해 연구되고 해석된 학문적 유물이 아닌 관람객 스스로 의미를 찾고 공감할 수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 이 될 수 있는 전시와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중화는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다. 고고학계도 박물관도 그 어느 때보다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해졌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전시에 대한 대중의 공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소통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공감이다. 고고학 자료가 가진 가치를 공감하게 하는 전시란 어떤 전시를 의미하는가?

박물관 전시를 통해 유물의 의미와 기능은 재구성되거나 재해석된다. 그래서 고고학은 다른 유적 유물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맥락’ 안에서의 파악을 중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박물관 고고유물 전시는 한국역사라는 큰 틀에서 그 기능이나 용도 등 도구성의 발전을 강조하는 시대성에 집중해 왔다⁴². 이제는 고고학 자료가 가진 맥락을 관람객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굴에서 전시까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고유물이 구석기시대 돌도끼,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청동기시대 돌검 등으로만 인식된다면 유물이 가진 의미는 진열장 안에 갇혀버릴 것이다. 박제된 유물은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전시물의 가치는 상실될 것이다.

고고학도 연구자의 연구에만 머무르고 그 성과를 대중에게 이해시키기 못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학문의 위상마저 추락할 것이다.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고고유적을 고고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독점해왔다. 고고유물은 제작·사용·폐기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과거 어느 시점의 인물과 사건들에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관람객이 실물을 마주하는 시각적 학습만으로 그 의미를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중을 위해, 그리고 위기 앞의 한국고고학을 위해 고고학자와 박물관이 해야 할 일은 대중의 공감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⁴³.

대중을 위한 전시는 관람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시이다. 역사 시험을 위해 유

⁴² 일반적으로 시대순 배치는 공간 설계가 쉽지만 시대별로 모여있는 비슷한 유물들은 사전 지식 없는 대다수 관람객들에게 지루한 전시 체험이 된다. 공시적 배치는 통사적 배치에 비해 서는 맥락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한정된 전시품으로 관람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⁴³ 한국고고학에서 ‘대중고고학’ 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존하는 주체는 대중이 되어야 한다. 발굴조사가 학술적인 행위가 아닌 개발을 위한 절차에 머무르고, 유적이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고 고통을 준다는 인식은 지난 70년간 고고학계와 박물관이 학문적 관념적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현실 속 대중의 인식 재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고고학 유적과 유물의 가치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며, 20년 동안 전국리 선사유적에서 행해진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문화유산축제와 교육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물을 외우려 오는 박물관이 아니라 유물이 가진 의미 형성에 초점을 두어 대중이 소장품을 해석하고 전시 체험을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박물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전시에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성과 부합하는 만지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방안을 강구하고 전시 연출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해야 한다⁴⁴.

고고유물은 형태적·기술적·상징적 특징, 역사적 배경, 유적과 유구 등 출토 상황, 여러 가지 적용된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 발굴되고 전시되기까지 등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국립박물관과 고고학계가 역사적 학문적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 고고유물이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따라 앞으로 대중의 이해는 달라질 것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전문적인 정보를 흥미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대중의 입장을 고려한 이야기가 있는 전시는 대중의 참여와 이해를 돕는 공감의 시작이 될 것 있다. 고고유물이 가진 맥락을 이야기하고 그 가치를 살리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대중고고학을 위해서, 그리고 대중화를 위한 박물관 전시의 앞으로 과제이다.

4. 마치며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달하는데 노력해왔다. 한국 고고학은 박물관과 함께 성장하면서 고고학 자료를 통한 한국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기여해왔다. 국립박물관과 한국 고고학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는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고고유물이 단지 과거에서 전해진 어떤 물건이 아니라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 사회와 문화를 구성했던 매개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고고유물을 통해 국립박물관이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은 이러한 가치 창조에 있는 것이다. 국립박물관은 고고유물의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고 대중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자산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국립박물관은 더 견고하게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견고함은 전시장 안에서 유물을 보여주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에게 유물이 가진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하고 이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고고유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활용을 위해 국립박물관이 고고유물이 가진 맥락을 되살리는 다양한 전시 방법을 개발하여 대중화를 위한 박물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⁴⁴ 전시 매체는 전시 그 자체의 본질을 잃지 않고 전시 의도를 전시자료에 의해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70년대 전시 개념의 도입으로 전시물에 라벨을 붙이기 시작한 이래 새로운 전시 매체들을 도입하여 조작(Hands-on)체험에서 감성(Hearts-on)체험까지 상호 교류가 가능한 인터랙티브(interactive) 전시 연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영상매체는 평면적이고 나열식 전시에 비해 시각, 청각에 호소하는 신선한 자극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며 많은 양의 정보 제공 또한 용이하여 박물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기반한 전시 공간 연출의 변화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시 체험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 이보아, 2000,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고고학사전』,
국립중앙박물관, 2006, 『국립중앙박물관 60년:1945-2005』, (주)계문사:서울
존 포크·린 디어킹/ 이보아 옮김, 2008, 『관람객과 박물관』, 북코리아:서울
최석영, 2008, 『한국박물관 역사 100년 진단&대안』, 민속원:서울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서울
국립중앙박물관·(사)한국박물관협회, 2009, 『한국박물관 100년사』, (주)사회평론:서울
한국고고학회, 2011년(개정판), 『한국 고고학 강의』, (주)사회평론: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4, 『2013년 연보』
2013, 『국립중앙박물관 고객만족도 조사』
2012, 『국립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이영철, 2007, 「大衆考古學을 위한 우리들의 役割」 『연구논문집 제7호』, 호남문화재연구원
최성애, 2012, 「고고유물 대중화를 위한 박물관 전시방안」 『박물관과 공공고고학-2012 한국
박물관국제학술대회 키노트』 한양대문화재연구소
조우택·최성락, 2014, 「고고학의 대중화에 관한 시론」 『한국고고학보 90집』, 한국고고학회
배기동, 2014, 「문화유적 축제와 문화유산 교육」 『문화유적 축제와 문화유산 교육-2014 한국박
물관대회 키노트』 한국박물관교육학회·동아시아고고학연구회
-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한국고고학회 www.kras.or.kr
문화재청 www.cha.go.kr
국립문화재연구소 www.nrich.go.kr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portal.nricp.go.kr
한국역사문화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 www.excavation.co.kr
네이버 뉴스: newslibrary.naver.com